

“국제포교에 적극 나설 터”

국제포교사회 백원기 회장

“주한 미군과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제포교사회 백원기(동국대 전자계산학 교수) 회장은 5월 3일 미8군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계기로 3년전에 사실상 해산된 미8군법우회를 재창립하는 등 주한 미군 포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8군 법우회 재창립도 추진

다. 이와 함께 주한외교사절 및 외교관 부인 초청법회를 비롯, 불교 영어수업을 원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한 인력지원 등도 실시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법륜사, 미얀마선원 등과 연계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출신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복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120여명의 국제포교사가 하나로 뭉쳐 국내거주 외국인포교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템플스테이 사업 지원을 계기로 향후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사찰안내는 건물이나 문화재 설명과 함께 스님들의 정신세계와 한국불교의 역사성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월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업스님(국제포교사회 수석부회장)이 조계사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벽화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

한영 불교사전 만들계획

봉은사 문사수회 이태길 회장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외국인들과 이드들을 위한 <한영 불교사전>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 봉은사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모임 문사수(聞思修)회 이태길(58, 레이아웃 인터넷내셔널 코리아 이사) 회장은 “이번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는 물론 한국의 수평 전통을

매주 외국인 20명 불교체험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서울 아셈(ASEM) 회의를 계기로 봉은사 외국인 안내 활동과 인연을 맺은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받아 아내 박미자(57, 주부씨, 딸 이영남(3세)씨와 함께 국제포교사 가족이 될 정도로 외국인 포교에 헌력을 쏟아왔다. 군대시절 영어교육을 담당 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뛰어난 이 회장은 4월 28일부터 봉은사에서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 외국인 불교체험 행사를 매주 20명 내외로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세계인에 심는 침병 외국어 자원봉사자 실습 한창

“불교문화는 민족의 얼과 지혜를 담고 있어요. 단순하게 건물과 문화재를 소개할 것이 아니라,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정신과 한국 불교의 수행가풍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해요.”

4월 20~21일 1박2일간 템플스테이(Temple Stay) 외국어 자원봉사자 3차 연수가 벌어진 수덕사의 원통보전. 중국어 담당강사인 경완스님(수덕사는 11명의 연수생들에게 중국어로 관세음보살상과 각종 탱화를 설명하며, 외국인에게 사찰을 소개할 때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경완스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소영씨 등 연수생들은 전문적인 불교용어를 잘 모를 때면 꼬치꼬치 캐물으며, 실제 외국인 안내하듯이 중국어로 설명했다. 1, 2차 연수 때는 불교를 잘 몰라 다소 어색해 하던 연수생들은 어느새 불자가 다 되어, 이번 연수에서는 능숙하게 사찰의 이모저모를 설명했다.

영어, 일본어 연수생들도 예뻐, 참선 실수에 이은 다도 및 발우공양, 연등 제작 등의 실습시간에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시연하며 봉역을 해보았다. 모두 언어별로 대화가 자유로울 정도로 전문가이지만, 불교용어가 아직 생소한 것이 많아 강사들에게 물어가며 통역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반면 외국어 ‘한국불교 안내서’나 ‘불교용어 사전’은 물론 상설 교육기관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교전문 봉역사나 가이드를 양성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보였다.

월드컵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과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을 숙지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중국어 11명, 일본어 25명, 영어 94명 등 모두 130명. 조계사, 봉은사, 직지사 등 31개 사찰 실무자와 국제포교

김은영씨) 사찰별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은 외국인에게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진행과,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한국불교 체험이라는 데 공감했다. 연수생들도 이 사업이 안방에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포교 기회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남은 기간동안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하는 전념사가 될 것을 다짐

“언어가 유창한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진짜 통역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림사, 광림사, 와우정사 등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등 모두 34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이번 템플스테이 사업은 관광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상품이 될 것이라든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화관광부들 비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템플스테이를 주말 수련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템플스테이사업단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매년 국립공원에 2천만여명의 예비신도가 들리지만, 이에 대한 포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주5일제 근무와 국제 포교를 대비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는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비롯,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연합회’(운영위원장 선업스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도 30여명의 국제포교사 연수생과 다수의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98년 출범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26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그림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미8군 및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국내외 외국인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종교별 해외포교 활동상황을 영상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해외포교의 원력을 다진 이번 후원의 밤을 계기로 국제포교사회는 5월 3일 미8군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주한 미군포교를 시작한다. 외국인용 <사찰안내 지침서> 발간을 비롯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개선 및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대식을 가진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합회’ 이하 외자연은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속초 신홍사, 연등 국제불교회관 등 8개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봉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외자연 운영위원장 선업스님은 “포교 일선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불교를 이해시키는 일은 외국어와 불교 교리에 능통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조계종 포교원 및 국제

포교사회와 협의해, 이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를 회원으로 대부분 받아들여 지속적인 외국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김재경 기자 jgm@buddhacia.com

템플스테이 대비 130명 수덕사서 연수 | 외국어로 사찰 소개하며 자부심 느껴
예불·발우공양등 영·일·중국어로 시연 | 지속적 교육·관리, 봉사단 확대 필요



○4월21일 수덕사 원통보전에서 국제포교사 중국어강사인 경완스님이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중국어로 관세음보살상에 대해 설명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 배포된 사찰안내 리플렛. 7개국어로 제작됐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불교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운영지침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적으로 참선, 포행, 다도, 예불 등을 체험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만 해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합니다.”(직지사

했다. 21일 회향식에서 수덕사 주지 범정스님은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들은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어느새 신심과 헌력을 갖춘 일등 포교사가 되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경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명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 蔓蓼 (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엔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픈면 무릎이 안 아프다.
-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 손발 저림감이 없어졌다.
- ◆ 천식이 떨어졌다.
- ◆ 인파선이 나아졌다.
- ◆ 자궁 출혈이 없어졌다.
- ◆ 변비가 남았다.
- ◆ 열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경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명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 (원기, 진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x 60포 : 15만원 ■ 2Box x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업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